

소비자 맞춤형시대 진입, 국내 최초 계란 생산이력제 실시

지난 호에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정희 박사를 비롯한 국방대학교 교육생 8명이 조인(주)(회장 한재권)의 GP센터 방문으로 국내 계란의 위생적인 포장유통 작업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임을 본지에 소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인(주)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에게 계란의 생산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계란 생산이력제를 도입한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신세계 이마트점, 계란이력제 시연회

지난 11월 1일 서울시 은평구 이마트점에서는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해 한재권 대표이사와 강광파 이사(소비자시민모임), 김경남 소장(축산물등급판정소)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계란 생산이력제 시연회를 열었다.

계란 생산이력제란 소비자들이 한눈에 보고,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계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들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계란 난각에 마킹된 고유번호를 생산이력제 단말기에 입력하거나, 축산물등급



▲ 지난 1일 이마트 은평점에서 국내 최초로 계란 생산이력제 시연회가 개최되었다.

판정소 홈페이지(<http://www.apgs.co.kr/etrace/etrace.asp>)나 조인(주) 홈페이지(<http://www.joinbio.co.kr/index.asp>)를 접속하여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정보와 제품 포장 단계까지 내용을 DB화하여 계란의 생산날짜, 품종, 주령, 계란의 등급, 항생제 잔류검사, 등급판정 및 포장일자, 농장, 집하장 소재지 등의 정보까지 계란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도입 기대효과

조인(주)의 계란 생산이력제 시행으로 상품의 유통경로 검색으로 구매자 알 권리 충족으로 소비자 맞춤형 시대에 양계분야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계란에 의한 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과 사고발생 단계를 파악하여 문제 상품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같은 사고의 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계업계에서도 닭의 혈통 및 사양관리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여 활용도를 높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 조인(주) 강남농장 계란에 관심을 갖는 주부들

소비자들의 첫 반응

이마트 은평점에서 첫 시연회로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이력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터치스크린에 0.5cm 정도의 작은 글씨 크기로 마킹된 영문 번호와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있지만, 차후 간편화와 단순화를 위한 보완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관심이 있는 주부들에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인(주)는 이마트 은평점 내에 단말기를 시범 설치했으며, 앞으로 단말기 설치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우부터) 소비자시민모임의 강광파 이사와 조인(주)의 강구만 이사는 직접 이마트내에 진열된 계란을 생산이력시스템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